

제20편 - 제3신앙촌시대(제7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81회)

제20편
제3신앙촌 시대(제7부)
 一. 구세주 출현에 성공한 영모님
 二. 영모님이 증거하시는 구세주는 조희성님
 三. 승리제단의 주인은 조희성님
 四. 嗚呼悲哉聖壽何短(오호비제성수하단); 말운론
 五. 오 슬프대!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으신가!

五. 오 슬프대!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으신가!

3) 박태선하나님 화천(化天)하시다!

은 세계 마귀가 박태선님을 공격하기 위해 가장신앙촌에 집결하였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 집결한 마귀들이 영모님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영모님을 압박한다는 것도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은 세상마귀가 다 기장에 집결해 있다.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속에 최고의 마귀세력이 있다. 이 마귀세력을 분산시켜야 한다(82.3.15)”

“끝도 한도 없는 수로 문쳐진 마귀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81.11.14)”

위의 영모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분명 은 세계의 마귀가 영모님에게로 집결되어 있고, 그 집결된 무량대수 마귀들이 영모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다 들어가서 영모님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영모님은 이 마귀세력과 싸우시기가 힘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끝도 한도 없는 수로 문쳐진 마귀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라고 하신 것이다. 또 “이 최고의 마귀세력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하셨다. 이와 같은 영모님의 말씀을 종합하여 볼 때 영모님은 분명 힘든 싸움을 하시면서 매우

절박한 상황 속에 계셨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 마귀떼들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긴박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모님을 따르려는 무리들은 영모님의 영적말씀을 알아 들지를 못하고 가장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영모님 곁을 절대로 안 떠나려고 더욱 바짝 영모님 옆에 달라붙어 있다. 영모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영모님 옆에 붙어 있지만 실은 그 속의 무량대수 마귀떼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 영모님 옆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영모님의 생명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마귀의 피난처는 인간이다”라고 하신 것이다. 마귀들은 다 영모님을 따르려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 숨어 영모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모님은 그 무리들과 싸우면서 오염된 피를 계속 대야로 쏟으면서 사경을 헤매곤 하셨던 것이다.

“내 말을 잘 듣는 마귀새끼들이 있는데 끝까지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불구덩이에 쓸어넣을 거야(80.3월 말씀)”

위에서도 설명한 것같이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교인들은 영모님을 생명을 걸고 따르려는 제일 열심쟁이 교인들인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위의 영모님 말씀처럼 무량대수 마귀들이 들어간 마귀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내 말을 잘 듣는 마귀새끼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다.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무리들에게 포

위되어 있는 영모님은 이 무렵 많은 종류의 병마가 침투해 들어와 있었다. 기침과 가래를 동반한 기관지 문제 또 당뇨 또 위장장애 등에 상당한 병소(病巢)가 있었다. 피를 대야로 쏟으면서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시력은 형편없이 나빠져서 아주 두꺼운 돋보기를 쓰셔야만 했다.



예배 인도하시는 가운데 신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영모님

영모님은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미국까지 다녀오셨다. 그러나 병은 차도를 보이지 않았었다. 은 몸의 통증 때문에 매우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강력한 진통제를 사용하였으나 그 강력하다는 진통제도 효과가 없어 영모님은 너무나도 심한 통증의 고통에 시달려야 하셨다. 강력한 진통제로도 안 되니까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셨다. 물론 진통제로 사용을 하신 것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영모님이 말년에 마약까지 했다고 나쁜 뜻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사실은 영모님 몸의 심한 통증이 진통제로는 안 되어서 마약을 사용하여 진통을 진정시키려고 하신 것이었다.

“생수를 타고 고도로 올라간 사람들을 피하여 나는 산중에 가서 숨어 있지 않으면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83.1.4)”

당신이 생수를 마시고 고도로 올라간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사람들을 피하여 산중에 가서 피해 있어야 하신다는 말씀

은 결국 당신은 이 마귀떼들 때문에(열심쟁이라고 하는 교인들)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영모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인 것이다. 이와 같은 영적인 사정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사람이 안 죽는다는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증거를 하시던 분이신가! 영모님은 승리자요 감람나무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돌아가시는 분의 첫표본이라고들 생각을 하게 한 분이시다. 영모님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을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했던 분이시다.

1976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으나 그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

다. 영모님은 크리스마스날이면 전국 관장들을 초청해서 당신의 집에서 풍성하게 식사대접을 하시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었다. 그런데 1976년 12월 25일도 예외 없이 전국 관장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시는데 영모님이 직접 나오셔서 많이 먹으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내가 축복을 강하게 한 음식이니까 과식을 해도 절대 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많이들 먹으라”고 하신다.

그러시더니 영모님은 혼잣말처럼 “나도 죽을 수가 있어!”라고 한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다. 영모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들은 사람들은 들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그냥 지나쳐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영모님택에서 식사를 대접할 때에는 먼저 온 사람이 빨리 먹고 나가야 뒤에 온 사람들이 교대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하는 영모님택은 매우 소란스러웠다. 그래서 그와 같은 깜짝 놀랄 영모님의 말씀을 못 듣고 지나친 사람들이 많았다. 그와 같은 영모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관장들이 놀라서 영모님을 쳐다보니까 영모님은 즉시 해명하기를 “아니 내가 꼭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야!”라고 하시는 것이다.

사실 나중에 하신 영모님의 해명 말씀도 정신차려 생각을 해보니 역시 당신이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들려 주신 말씀이었다. 영모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은 관장들은 계속 그 말씀이 귀에 쟁쟁거려서 며칠 동안 일이 안 되더라고 말하였다. 이때 영모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나 영모님의 그 말씀은 곧 다 잊어버리고 영모님은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100% 머리 속에 다시 자리잡았다. 영생을 강력하게 증거하시던 영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들은 어찌 되는 건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야 한다고 간절히 소원했다고 해야 맞는 말이 될 것이다.

영모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안찰을 해주시고는 새끼손가락을 서로 걸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삼천년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같이 살자”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신 영모님은 정말로 삼천년성인 구세주 계신 곳에 같이 가서서 영원히 사시려고 하신 마음이 계셨던 것일까? 아니면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구세주의 삼천년성에 보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시려고 알려주신 것일까?

영모님의 사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세주 출현시키시는 사명이시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적군에 포위되어 있는 중에 당신은 해산의 수고 끝에 낳은 아들 구세주를 첩첩이 에워싸고 있는 적군을 뚫고 구출하여 무적장수로 키워 세워놓으시고 당신은 그 적진 속에서 장렬한 전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

새끼손가락을 서로 걸면서 “삼천년성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시던 영모님은 지금 삼천년성은 가시지를 못하고 삼천년성을 바라만 보시다가 세상을 떠나려 하시고 계신다. 은 몸의 통증을 참기가 힘들어서 진통제를 맞으시다가 안 통하니까 마약까지 쓰시면서 통증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

다음호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제90회

出將論(출장론)

運去運來天運來 운가운래천운래로
 一次二次三次大亂 일차이차삼차대란
 楚漢時節天下將帥 초한시절천하장수
 力拔山兮氣蓋世 역발산兮기개세로
 天下大將羽項類 천하대장우항류
 東西南北蜂起 동서남북봉기로서
 奪財人命殺害主張 탈재인명살해주장
 無罪養生可憐 무죄창생가련구나

지운(地鬼의 運)이 가고 천운(天神의 運)이 오는 중에 1차 2차 3차로 크나큰 영적 싸움이 있느니라. 천신과 지귀(地鬼)의 삼 세 판의 영적 싸움이 있다. 초한 시절 천하 장수의 역발산기개세(力拔山兮氣蓋世=신을 뽐을 만하고 그 기세는 능히 세상을 덮을 만함)로 힘자랑을 하며 다투는 가운데 자칭 천하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동서남북 여러 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재물을 빼앗고 인명(人命)을 살해하니 아무런 죄도 없는 창생들이 가련하구나.

湖西北華蘇伐地 호서백화소벌지에
 口吐火將白眉 구두화장백미로서
 殺害人命主奪財 살해인명주탈재로
 富貴家中屠戮時 부귀가중도륙시세
 蘇城百里人影永絕 소성백리인영영절

血流成川血 혈류성천승혈로서
 忠淸分野八門卦 충청분야팔문괘가
 非吉地 비길지로 定 정했으니
 好運 호운이면 儻倖이요
 非運 비운이면 狼狽 낭패로다

호서지방의 백화(白華) 즉 외모가 하얗고 화려한 자들이 소벌지에 출현하여 눈썹은 희고 입으로는 불을 토하듯 궤변으로 사람을 죽여 인명을 살해하고 재물을 탈취하느니라. 부귀한 집을 짐중적으로 도륙할 때에 소성 백리에 사람의 그림자가 영영 끊어지고 승리의 피가 흘러 내를 이루느니라. 충청도 지방은 팔문괘(八門卦)에서 길지(吉地)가 아니라고 정했으니 운이 좋으면 요행이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로다.

白華八峰劫殺龍勢 백화팔봉검살룡세
 第一尤甚瑞泰 제일우심서태로다
 湖南智離靑靑將軍 호남지리청미장군
 呼風喚雨異跡 호풍환우이적으로
 俄由人民統率 맹충인민통솔하야
 湖南一帶蜂起時 호남일대봉기시에
 嗚呼哀哉可憐 오호애재가련하다
 未成兒童何罪 미성아동하죄건로
 男女十歲以上 남녀십세이상으로
 盡被刀鋸悲慘 진피도거비참구나

南靑西北假鄭 남청서백가정들이
 掀天一世揚揚 혼천일세양양으로
 八門 팔문금사 六花陣 육화진에
 生死門 생사문이 開開 개페로다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가짜들이 사람들을 겁탈하고 살해하는데 응과 같은 가짜의 위세가 제일 심한 곳이 서태(瑞泰)이니라. 호남지리(湖南智離)의 청미 장군이 비바람을 부르는 이적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호남 일대에서 봉기할 때 오호 슬프구나! 가련하도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 십 세 이상의 남녀가 모두 같과 톰으로 형벌을 받으니 비참하다.

호남 호서에서 일어난 가짜 정도령(형미장군, 백미장군)들이 하늘을 뒤흔드는 의기양양한 기세로 일세를 풍미할 때 정도령이 휴(休), 생(生), 상(傷), 두(杜), 경(景), 사(死), 경(驚), 개(開)의 팔문(八門)에서 육화진(六花陣=天火)을 치니 생사문(生死門)이 열리고 닫히느니라. 가짜 정도령을 따르던 사문(死門)에 들어 죽게 되고 진짜 정도령을 따르던 생문(生門)에 들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육화진은 진법(陣法)의 하나로, 당나라의 이징(李靖)이 제갈량의 팔진법(八陣法)에 기초하여 만들었으며, 눈꽃 모양이다.

古月遼東犯郭將軍 고월동봉범곽장군
 尋萬大兵統率 심만대병통솔하야
 不義者 불의자를 嚴伐 엄벌할제
 頭上保角愛護 두상보각애호하며
 絶長保短善者扶支 절장보단선자부지
 積惡之家無不殘滅적악자기무부잔멸
 身不離之頭流化 신불리지두류화로
 積善者 적선자는 생생이로다
 土室石枕正道人 토실석침정도인들
 多誦眞經不休 다승진경불휴하소

오랑개(古月=胡)가 요동을 침범함에 곽 장군이 심만 대병을 통솔하여 불의자(不義者)를 엄벌할 때 머리에 쓴 면류관을 아끼고 보호하고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을 보충하며 즉 좋은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듯이 선자(善者)를 도와 고성과 어려움을 잘 견디도록 하며 악을 쌓은 집안은 남김없이 없애버리느니라. 토굴에서 들베개를 베고 자면서 바르게 도를 닦는 도인들이! 쉬지 말고 진경(眞經)을 많이 외우소.

魍魎魍魎鵝鵝병무경 리매밍랑압병무경
 邪不犯正眞經 사불범정진경이라
 北海出世走肖神將 북해출세주초신장
 風雲造化任意用之풍운조화임의용지
 義兵用事善惡判斷 의병용사선악판단

지구(地鬼)의 운이 가고 천신(天神)의 운이 오며 무적장수(마귀를 이기신 정도령)가 출현하느니라

같은 사악하고 사된 것이 침범할 수 없는 것이 정도(正道)의 경문(經文)이요 기도문이니라. 해우 반도의 북쪽에서 출세한 조(趙=走肖)씨 신장(神將)이 풍운조화를 임의(任意)로 행하면서 영적인 의병을 일으켜 선악을 판단하느니라. 높은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듯 물밑듯이 남쪽으로 쳐 내려와서 깃발을 적에 애착롭구나.

인생들이여! 악한 자는 만나는 대로 죽임을 당하니 바위굴에 숨은들 목숨을 보전하겠는가?*

박명하/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고서연구가 박명하 선생님의 유튜브 강연 안내



동영상 재생목록 '고서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물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광고 및 구독신청	
우 422-826	전화 032) 343-9985	
홈페이지 www.victor.or.kr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